

규모는 중소규모 현장! 안전은 대규모 현장의 안전활동!

영민건설(주) 대전가오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

매서웠던 동장군도 밀려오는 봄기운에 어쩔 수 없나 보다. 입춘이 지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봄기운 속에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며 농사일을 준비하는 우수이다 보니 따뜻한 햇살에 나른함은 더해간다. 잠시 쉬었다 기고 심을 만큼 만사가 피곤해지려하는 요즘이다. 그러나 봄기운에 더욱 활기를 띄는 곳이 있다. 현장 규모는 중소규모의 작은 현장이지만 안전에 대한 열의는 그 어느 대기업보다 또 거운 곳. 영민건설(주) 대전가오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도정환 현장소장)이 오늘 찾은 곳이다.



대 전광역시 교육청에서 발주를 받아 2005년 1월에 착공하였고, 금년 7월 준공으로 2학기부터는 우리의 자녀들의 꿈을 설계하는 장이 될 것을 그리며 안전한 시공을 하고 있는 이곳에서 건설경력 14년의 노하우로 고품질, 안전시설물을 짓고 있는 도정한 소장을 만났다.

안전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 ■ ■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건축분야에서 일을 하다 산업안전기사를 취득하면서 안전의 길을 함께 걸어 왔던 도정환 소장은 현장에서의 안전은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한다.

과거 기사시절 현장 식구 한사람이 산업재해로 그 가족이 격어야 했던 고통을 옆에서 지켜봤던 그였기에 안전에 대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까 이 곳 현장에서는 안전이 준비되지 않은 작업은 시작부터 하지 않는다.

이는 자율적인 안전이 있어야 가능하고, 이전에 안전마인드가 자리잡지 않고서야 불가능할진데, 선안전 후시공을 하고 있는 대전가오초등학교



▲ 도 정 환 현장소장

교 현장은 안전마인드가 있고, 자율안전이 근로자의 마음과 현장 곳곳에 뿌리내렸음을 보여준다. 안전마인드를 형성하고 있는 데에는 청결한 현장 유지가 있다. 도정환 소장이 강조하고, 영민건설 김옥호 사장이 이야기하는 깨끗한 현장을 실천하는 청결한 현장에서 무재해 현장의 기틀을 쌓아 가고 있다.

중소규모 현장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대규모 현장보다 힘들어 ■■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온상은 건설현장이라 한다. 그 중 중소규모 건설현장이 그 주체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산업계에서 전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오늘 찾은 이곳 현장은 현장 입구에서부터 여느 중소규모 현장과는 사뭇 다르다.

입구에 설치해 놓은 안전체험장을 비롯해 현장을 둘러싸고 있는 계몽안전표지판과 잘 정돈된 현장 모습은 대단위 아파트 현장을 방불케 한다.

오래전 어느 학교 신축현장에서 보았던 불안전하고 발 디딜 틈이 없이 너저분한 자재들을 생각하고 찾은 나는, 현장 사람들에게 미안하기도 하였고 무안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에는 안전관리비가 풍족하게 지원이 되지 않는 중소규모 현장, 특히 관급공사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들이기에 그렇게 했는지 모른다.

도정환 소장은 중소규모 현장에서 이렇게까지 안전활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털어 놓는다.

첫째, 현재 규제완화조치로 이곳과 같은 100억 미만 현장에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다보니 안전기술에 대한 자질과 능력이 떨어짐에 따라 현장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안전관리비를 정산대상으로 하는 제약으로 현장에서의 안전시설 하나 설치하는 데에도 간섭을 받는 것이 중소규모 건설현장들이 겪는 또 하나의 어려움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차수공사를 수행하는 이곳과 같은 경우는 3차에 걸쳐 준공을 해야하는 과제가 있어 정해진 순서에 의해 준공을 해야 하기에 다소 안전에 소홀해질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을 이끌고 있어 더욱 빛이 난다.

손발을 맞춰 무재해 준공을 향해 ■■

아침 6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이 곳 현장에서도 요란한 음악소리에 맞춰 모든 현장 식구들이 몸을 풀며, 오늘도 안전을 외치며 하루를 시작한다. 이들의 모습들은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 돌아가듯 자연스러운 모습들이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이곳현장 협력사들은 그 이전 현장부터 계속 함께했던 현장 동반자들이다. 협력사를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안전때문이라고 도정환 소장은 설명한다. 오래전부터 손발을 맞춰 왔던 그들이기에 현장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말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한다. 이것이 도정환 소장이 말하는 자율안전이다. 또한, 직원들은 매 현장마다 안전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 한달에 한번은 타현장의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접하면서 발전을 꾀한다.

맺음 말 ■■

대전가오초등학교 현장은 무재해 준공 이후 주인공이 될 사람이 우리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안전시공도 중요하며, 고품질 시공을 통해 추후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곳 사람들의 사명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재 하나 하나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전가오초등학교는 준공 이후 대전시에서 시행하는 건축대상에 당당히 출품한다는 자신감으로 무재해 준공을 향한다. 

〈최종택 기자〉